

'개인행복지수' 가르는 책읽기

구미영 | 아동문학가 · 충북독서지도사회 대표

인간에게 '읽기' 라는 행위는 무엇이며, 어디까지일까? 이렇듯 다소 영뚱한 의문이 나를 독서운동가로 살게 한 출발점이다. 왜 굳이 독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읽기라는 말을 고집하는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대답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읽기를 시작하지 않는가? 환경과 기후를 읽고 함께 사는 사람을 읽고, 음식을 읽으며, 감정을 읽으며, 미래를 읽는다. 문자 발명 이후에는 주로 우리가 글을 읽고 독서를 한다는 의미의 읽기를 강조하지만, 이런 좁은 의미의 읽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읽기는 위대한 개인과 세상 전부와의 교통(交通)이다.

어린 시절 나는 뒷간에 앉아서 《농민신문》 쪼가리를 구석구석까지 맞춰가며 읽었고, 두살 위인 오빠의 교과서를 미리미리 다 읽어버렸다. 덕분에 오빠보다 공부를 잘하던 나는 꿈쩍이도 손자를 위하던 할머니의 구박당어리가 될 때도 많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밤중 할머니의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 새벽까지 흐릿한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읽으며 울고 웃었던 내 모습이다. 그것이 나의 세상 읽기였다. 이런 전력이 나를 책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지 모른다.

지역에 독서 모임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글을 쓰고 성인들을 위한 강의도 했다. 도서목록을 만들어 학교와 서점에 배포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요즘은 충

청북도 독서지도사회 회원들과 소외지역 독서지도 순회강연을 다니고 있다. 역시 행복한 읽기의 일부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안타까운 몇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첫째, 독서 교육이 핵심은 버리고, 제2, 제3의 과외과목을 하나 신설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물론, 더 이상 독서 행위를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거나 도서관에서 자기 손으로 빌려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충 요약된 글을 읽거나 교사의 지침에 따라 복사물을 읽는 수준으로 전락했고, 인터넷이 다 대신해 준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판이나 창작에도 권위와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어린이·청소년 출판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학계와 비평계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반복되는 내용을 흉내내서 출판하기, 아동·청소년물 출판에 너도나도 뛰어들기, 무조건 외국작가나 출판사의 책을 번역하기 등 독서시장의 '물 흐리기' 가 더 큰 문제다.

셋째, 무분별한 영어 교재 및 영어 동화의 수입이다. 교육재료의 역수입 현상은 지금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일은 우리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확산될 때 더 가치를 지닐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읽기는 깊은 의미에서 최대한 광범위하게 개방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읽기에 다국적, 다문화적 그리고 지극히 다양하고 다면적인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만이 복잡한 현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우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공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행복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읽은 사람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점점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개인행복지수'의 차이라고 명명하며 존중한다. 나는 행복하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